

경주 서악동 석침총 발굴조사와 그 의의

車 順 喆*

〈목 차〉

- I. 들어가며
- II. 경주 서악동 석침총의 조사경위와 내용
- III. 발굴조사방법
- IV. 경주 서악동 석침총 발굴이 한국 고고학사에서 차지하는 의미
- V. 마치며

국문요약

경주 서악동에 소재한 ‘石枕塚’은 1909년 말 한국정부 度支部의 의뢰에 따라 경주지역에 출장 온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가 발굴조사한 횡혈식석실분이다. 이 고분은 신라 석실분에 대한 연구사에서 가장 앞머리를 장식하는 고분들 중 하나로 신라 고분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판단된다.

이번에 필자가 서악동 석침총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악동 석침총은 1909년에 발굴조사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보존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봉분의 정상부와 입구부가 위치했던 동쪽에 나타난 함몰흔적을 통해서 야쓰이 세이이치가 발굴조사한 방법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현장조사 결과 야쓰이 세이이치는 서악동 석침총의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지던 발굴조사방법을 그대로 대입하여 조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악동 석침총은 1909년 발굴조사된 이래 현재까지 그 정확한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석침총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야쓰이 세이이치의 조사내용을 통해 당시 발굴조사 내용을 복원하면서 신라고분에 대한 조사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1906년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황남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專門委員

동과 동천동에 소재한 신라 고분을 조사한 지 벌써 100년이 지났다. 이번에 서악동 석침총에 대한 조사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일제강점기에 발굴조사된 여러 유적들에 대한 재검증 및 의미부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서악동 석침총, 야쓰이 세이이치, 황혈식석실분

K C I

I. 들어가며

경주 서악동에 소재한 ‘石枕塚’은 1909년 12월말 한국정부 度支部의 의뢰에 따라 경주지역에 출장 온 야찌이 세이이치(谷井濟一)가 발굴조사한 황철식석실분으로 신라 석실분에 대한 연구사에 있어서 가장 앞머리를 장식하는 고분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서악동 석침총의 발굴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식 발굴조사 보고서는 간행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朝鮮古蹟圖譜』三에 게재된 사진²⁾과 해설문³⁾을 통해서 고분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⁴⁾ 그러던 중 필자는 고고학회에서 1910년에 발행한 『考古界』第八編 第二十號에 야찌이가 게재한 『韓國慶州西岳の一古墳に就いて』라는 논문과 관련사진 그리고 실측도면이 게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⁵⁾

이 논문은 야찌이가 직접 집필한 것으로 사진 2매⁶⁾, 도면 2매와 총 7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909년 서악동 석침총 발굴조사를 마친 후 조사자가 느낀 신라고분에 대한 연구성과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고, 특히 논문

1) 대한제국정부 탁지부의 위촉에 따라 세키노 다타시(關野貞), 야찌이 세이이치(谷井濟一), 쿠리야마 슌이치(栗山俊一) 등은 한국 고대의 건축물과 동양예술의 사학연구에 종사했다. 이들은 1909년 종로 廣通館에서 조사 성과에 대해서 강연을 했는데 그 내용을 묶은 책으로 『韓紅葉』이 있다.

2) 朝鮮總督府, 1916, 『西岳里石枕塚』, 『朝鮮古蹟圖譜』三, 도판 1198~1208.

3) 朝鮮總督府, 1915, 『朝鮮古蹟圖譜』解説 一—四, 46~47쪽.

4) 崔秉鉉, 1987,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439~440쪽.

홍보식, 2003, 『新羅 後期 古墳文化 研究』, 춘추각.

5) 谷井濟一, 1910, 『韓國慶州西岳の一古墳に就いて』, 『考古界』第八編 第二十號, 考古學會, 49~501쪽. 이 논문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희준과 사오토메 마사히로(早乙女雅博)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李熙濬, 1990, 『解放前의 新羅·伽耶古墳 發掘方式에 대한 研究 - 日帝下 調査報告書의 再檢討(1)-』, 『韓國考古學報』24輯, 韓國考古學會, 67쪽; 早乙女雅博, 2001, 『新羅의 考古學調査 「一〇〇年」의 研究』, 『朝鮮史研究會論文集』第三十九集, 朝鮮史研究會, 53~106쪽.

한편 야찌이 세이이치는 1910년 9월 조선일보사에서 주최한 한 <朝鮮講演>에서 『慶州의 陵墓』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그는 이 강연에서 서악동 석침총에 대한 조사내용을 소개하고 있지만 『考古界』에 실린 내용과 비교할 때 신라 고분 전반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글이기 때문에 관련사진이나 도면의 제시는 없다. 그리고 이때 발표한 원고는 『朝鮮藝術之研究』에 다시 수록되어 있다. 谷井濟一, 1910, 『慶州의 陵墓』, 『朝鮮講演』第一輯, 朝鮮日報社, 382~403쪽; 谷井濟一, 1910, 『慶州의 陵墓』, 『朝鮮藝術之研究』, 度支部建築所.

6) 『朝鮮古蹟圖譜』三에서 서악리 석침총과 관련된 사진은 유구 3매, 도면 2매, 유물 5매 등 모두 10매이다. 이 중 유구 사진 3매 중 2매는 야찌이 세이이치의 1910년 논문에 게재된 사진과 같다. 하지만 도면 2매는 『朝鮮古蹟圖譜』를 제작하면서 새롭게 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 게재된 ‘韓國慶州郡西岳洞古墳地形見取圖’는 그동안 ‘장산고분군’ 안에 속한 한 고분으로만 생각되어 오던 석침총의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서 차후 이루어질 신라 고분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판단되었다.

이번에 필자가 서악동 석침총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야쓰이가 석침총에 대한 발굴조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추정할 수 있는 모습들을 새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II. 경주 서악동 석침총의 조사경위와 내용

야쓰이가 서악동 장산고분군에 소개한 석침총을 발굴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논문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글을 편집한 와다 치요시(和田千吉 : 고고학회 간사)에 의하면 야쓰이가 대한제국 탁지부 촉탁으로 경주에 출장을 와서 발굴조사한 내용이 한국 고분의 모습을 알려주는 자료이므로 게재를 요청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한국 내 발굴조사 내용을 정리한 우치다 요시아키(内田好昭)는 서악동 석침총을 발굴 조사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세키노 타나시(關野貞), 하라 슌이치(栗山俊一)와 함께 고적조사를 온 야쓰이 세이이치가 지병으로 앓았던 가벼운 증세의 급성 류마티스 때문에 경주에 남아서 조사작업을 실시하였다고 한다.⁷⁾

서악동 석침총에 대한 전체적인 발굴조사 기간은 알 수 없지만 세키노 일행이 경주에 도착한 온 날짜가 12월 8일이고 떠난 날짜가 12월 15일이므로 그 이전에 발굴을 착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야쓰이가 대구로 돌아간 날짜가 12월 20일이므로 12월 9일에서 20일 사이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7) 『朝鮮古蹟圖譜』 三의 도판 1196에 표시된 西岳里 石枕塚의 위치를 야쓰이 세이이치의 논문 에 게재된 ‘韓國慶州郡西岳洞古墳地形見取圖’에 표시된 내용과 비교해 보면 ‘乙’이 아니라 바로 뒤쪽에 있는 ‘丙’에 해당되는 지점의 고분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16년에 『朝鮮古蹟圖譜』를 출판하기 위해서 새로 도면을 제도하면서 실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장산고분군이 위치한 능선의 등고선 형태가 서로 틀린 점에서도 알 수 있다. 朝鮮總督府, 앞의 책, 도판 1197참조.

8) 현장조사는 2006년 1월 30일에 하였다.

9) 이때 조사된 고분은 서악동 석침총 외에도 현재 위치를 알 수 없지만 황남동 남층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한다. 内田好昭, 2001, 『日本統治下の朝鮮半島における考古學的發掘調査(上)』, 『考古學史研究』 第9號, 63쪽.

수 있다.¹⁰⁾

야쓰이가 발굴조사한 서악동 석침총은 경주시 서악동에서 고개를 넘어 건천으로 향할 때 서쪽에 위치한 ‘장산’에 소재하고 있다. 이곳 장산에는 통일신라시대의 횡혈식석실분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고, 이중에서도 ‘장산 토우총’¹¹⁾이 잘 알려져 있다.

먼저 장산고분군 내에서 서악동 석침총의 위치를 야쓰이가 직접 작성한 도면에서 살펴보면 장산을 남북방향으로 지나는 주능선 정상부의 바로 아래쪽에 일렬로 배치된 4기의 고분 중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올 때 두 번째 위치한 고분으로 표시가 되어있다.(그림 1. 고분 배치도에 ‘乙’로 표시된 고분)

그리고 고분의 현상에 대해서는 높이 약 23척¹²⁾(약 7m), 평면은 직경 약 70척(약 21.2m)의 원형으로 분구 위에는 잔디와 같은 풀이 있다고 적고 있다. 고분의 분구 주변에서 호석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분구의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묻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석실의 구조는 비교적 큰 할석으로 쌓았으며 정면인 동쪽으로 입구부인 연도가 중앙에 위치한다. 석실의 네 벽과 천장에는 회가 얇게 발라져 있었으나 많은 부분이 박락되어 있었다. 벽석은 상부로 올라갈수록 彎曲되며 석실의 천정을 덮은 뚜껑돌은 3매의 화강암을 사용하였고 벽석으로 사용된 할석의 사이 틈에는 회를 채워서 매운 모습이 확인되었다. 석실의 바닥면에는 두께 약 3촌(약 9.1cm) 정도의 진흙이 덮여있었지만 이를 제거하자 모래 위에 회를 깔아놓았음이 확인되었다. 석실은 7척 9촌(2.39m)의 높이로 중앙부가 약간 팽창한 듯 부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좌우의 측벽은 중앙을 기준으로 할 때 3촌 5분(11cm), 뒷벽은 측면 중앙부를 기준으로 할 때 2촌 5분(7.6cm) 정도 들어간 모습이며 석실의 길이는 8척 4분 5촌(2.44m), 너비는 1장 4척 1촌 5분(4.29m)이다. 또 석실의 좌우 및 뒤쪽에는 측벽과 접해서 너비 약 3척(약 91cm) 내지는 3척 5촌(106cm)에 높이 6촌(18cm)의 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尸床으로 추정된다. 시상의 위에는 모래가 깔려 있었고 석실 중앙부의 바닥과 연도의 바닥은 같은 높이였다. 바닥 중앙부의 시상에는 할석으로 높이 2촌(6.1cm) 너비 약 3촌(약 9.1cm)의 구획이 되어 있는데 길이는 연도 쪽을 향해서 만들어져 있다. 연도의 좌측, 석실의 입구에는 약 2척 4촌(약 73cm)의 높이로 세워져 있는 1개의 할석이 옆으로 넘어진 모습이었다.

10) 内田好昭, 앞의 책, 49~58쪽.

11) 崔秉鉉, 앞의 책, 460~468쪽.

12) 이하 1척의 길이는 30.3cm로 계산하였다.

석실 뒤쪽의 벽면에 접해서 만든 얇은 단의 중앙에는 남쪽에서 18° 서쪽에 돌베개(石枕)를 북쪽에서 18° 동쪽에는 발이 향하도록 놓았는데 인골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석실 중앙에 만들어진 시상의 남쪽에는 커다란 돌베개를 놓고 북쪽의 발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할석을 세 방향으로 둘러서 세웠는데 모두 회가 발려져 있었다. 돌베개와 발 부분의 길이는 4척 9촌(148cm)이고 발 부분의 할석 사이의 너비는 8촌 5분(26cm)이었다. 따라서 피장자는 키가 5척(152cm)을 전후한 사람으로 추정되었다. 돌베개의 형태는 자연석의 중앙부분을 원형으로 얇게 파서 머리와 목 부분이 놓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연도는 높이 5척 1촌(155cm), 너비 4척 8촌(148cm), 길이 약 12척(3.64m)으로, 석실의 입구에서 2척 2촌 5분(68cm) 떨어진 장소에는 연도의 왼쪽 벽에 접해서 하나의 판석을 세웠는데 높이는 연도 바닥 위에서 1척 8촌 5분(56cm), 좌우 너비 1척 6촌 5분(50cm), 두께는 약 3촌(약 9.1cm) 정도이다. 연도의 입구는 할석을 쌓아서 막았다. 연도의 측벽은 석실의 측벽과 같이 비교적 큰 할석을 이용하여 쌓았는데 회를 사용했고 상부에는 뚜껑으로 비교적 큰 화강암을 여러 개 사용했다. 천정석의 두께는 약 1척 3촌(약 39cm)이며 그 위에 접해서 약 3촌 5분(약 11cm)의 모래층이 있고 다시 그 위에 접해서 두께 약 4촌 5분(약 14cm)의 작은 할석층이 깔려 있고 다시 그 위에 성토한 높이는 약 1장 2척(약 3.64m)에 이른다. 즉 석실 내부 바닥에 깔았던 모래의 최하층에서 성토된 최상면까지의 높이는 약 2장 3척 1촌(약 7m) 정도이므로 원래 분구의 높이는 2장 4척(7.27m) 정도로 추정된다. 분구의 저경은 현재의 약 70척(약 21.2m)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경사면이므로 거의 반원형의 형태로 추정되었다.

부장품은 석실 내부 좌측벽에 가까운 시상 위에서 뚜껑 1점이 위를 향한 채 놓여있었고 이외에도 여러 점의 토기편이 일괄로 확인되었다.¹³⁾ 먼저 토기 뚜껑은 단추형 꼭지가 부착된 半球形으로 배신 상단에 1조의 횡침선을 돌린 후 상단에는 6개의 三角集線文을 선각으로 그었고 아래쪽에는 23개의 반원점문을 시문을 하였다. 이외에도 모두 3개체분의 단경호가 확인되는데 짧게 외반하는 무문양의 단경호와 경부에 波線文이 시문된 단경호로 구분된다.

야쓰이는 서악동 석침총에 대한 발굴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주목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고분 주변의 조선묘와 비교하면서 고분의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무연고 묘인 ‘高麗塚’으로 불리고 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고려’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1910년)보다 오래되었다는

13) 朝鮮總督府, 앞의 책, 도판 1204~1208.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지금과 고려시대의 분묘를 비교하면서

첫째, 그 외형에 있어서 王者의 陵墓와 비교할 때 훨씬 큰 것이 없다.

둘째, 일반민이 볼 때 귀족은 王者의 陵墓이고 특히 기다란 연도를 가진 것이 있었다.

셋째, 발견되어진 토기는 지금보다는 전인 고려의 분묘에서 출토되는 것이다.

넷째, 관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시체를 석실 내부의 시상 위에 놓고 거대한 돌베개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보다는 오래된 고려 때에도 사용되지 않았던 사실 이므로 “이 무덤은 신라시대 이전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석침총은 신라 귀족의 고분으로 생각되며, 尸床과 石枕, 足座의 규모로 볼 때 5척(152cm) 전후의 신장을 지닌 자의 시신이 놓였다고 추정되므로 성인 남자로 보기에는 키가 작으므로 혹시 부인의 분묘가 아닐까 추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석침총 주변의 다른 3기의 고분은 석침총의 피장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고분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야쓰이는 위와 같이 살펴본 결과에 기초하여 서악동 석침총은 그 연원이 삼국시대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지만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서악서원 남쪽에 위치한 태종 무열왕릉과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4기의 고분이 나란하게 배치된 모습은 이번엔 발굴조사된 고분을 구성하고 있는 고분군 또한 4기가 나란하게 배열된 모습으로 서로 유사하고 토기의 문양, 형상, 수법 등에 있어서도 신라통일기의 비교적 이른 시대에 속하므로 그 시기는 일본의 나라시대에 해당한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이외에도 경주읍내의 황남동 고분군과 경주군 서면(현 건천읍) 금척리 고분군 등에서 확인된 적석총(Cairn)과 구분되는 연도를 가진 석실의 존재가 확인된 점(灰의 사용, 시상 규모, 석실의 방향 등)을 새로운 성과로 들고 있다.

Ⅲ. 발굴조사방법

야쓰이 세이이치가 석침총을 어떤 방법으로 발굴조사 했는가에 대해서는 관련기록이 없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올해 초 서악동 장산고분군 안에서 ‘석침총’의 위치를 확인한 결과 이러한 의문에 대한 실마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서악동 석침총은 1909년에 발굴 조사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보존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분구 외형에 있어서 큰 특징이 두 곳에서 확인된다.

먼저 뚜껑돌(蓋石)이 위치한 분구의 정상부분이다. 현재 이 부분은 사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함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발굴조사 후 뚜껑돌의 함몰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야쓰이의 석실 보고에 언급된 바와 같이 석실 천정의 뚜껑돌 위에 성토된 분구 흙의 두께까지 세밀하게 기술된 점을 참고한다면 처음 발굴조사는 분구 정점에서 굴착하여 뚜껑돌까지 도달한 후 뚜껑돌을 제거하고 석실 내부로 들어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야쓰이가 제시한 석실 내부 중앙에 위치한 시상 사진은 남쪽에서 북쪽을 보고 찍은 것이다. 시상의 그림자가 남서쪽으로 향하고 있는 점은 이 사진이 오후에 촬영되었음을 보여주며, 시상의 모습이 잘 들어나 있어 천정부가 모두 노출된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사진 7). 그리고 석침총의 실측도면을 살펴보면 석실의 상부에 놓인 뚜껑돌은 남북방향으로 3매가 표현되어져 있고 단면도에서 뚜껑돌의 너비와 두께 등이 표시된 점을 고려한다면 처음 발굴당시부터 뚜껑돌은 모두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다음 사진 5·6을 보면 분구의 동쪽부분에 함몰된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이 부분은 횡혈식석실분의 연도부분으로 추정되는데 본 고분의 연도 방향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당시의 발굴조사 기술로 볼 때 분구 조사를 통해서 묘도부를 확인하는 작업 순서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석실 내부에서 연도를 확인한 후 폐쇄석을 제거하고 묘도부까지 조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야쓰이의 도면에는 연도부에 대한 구조를 알 수 있는 내용이나 표시가 없는데 처음부터 도면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뒤에 묘도부를 다시 판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야쓰이가 연도에서 확인된 門扉石의 존재를 보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음 조사할 때 묘도부까지 조사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특히 『朝鮮古蹟圖譜』 三에 게재된 도판 1199(사진 5)를 살펴보면 분구의 한쪽 측면을 파 들어간 흔적이 확인되므로 연도부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서악동 석침총의 발굴과정을 복원하면

- 1) 분구 위에서 뚜껑돌까지 수직으로 굴착을 하여
- 2) 뚜껑돌을 제거하고
- 3) 석실 내부에 진입한 후
- 4) 석실 내부에서 연도의 방향을 확인한 후
- 5) 연도와 묘도부 조사라는 과정을 밟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야쓰이가 행하였던 이러한 발굴조사방법은 당시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진 고분조사방법과 비교하여 살펴 볼 때 별 차이가 없는 동일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¹⁴⁾

IV. 경주 서악동 석침총 발굴이 한국 고고학사에서 차지하는 의미

야쓰이 세이이치가 1909년 말에 발굴 조사한 서악동 석침총은 고분의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지던 발굴조사 방법을 그대로 대입하여 조사한 것이다. 그가 석침총의 연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분 주변에서 확인되는 조선묘 그리고 고려묘와 비교를 행한 점은 당시에 삼국시대의 적석목곽분과 횡혈식석실분의 연대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라 고분의 연대를 밝히기 위한 연구라 할 수 있지만, 서악동 석침총은 1909년 발굴 조사된 이래 현재까지 그 정확한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조사가 학술적인 목적보다는 그 고분의 형태와 특징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 조사’에 치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특히 야쓰이를 비롯한 세키노 일행은 이미 한국 고적에 대한 일련의 조사를 수행하면서 석실 고분의 특징을 파악한 상태이므로 그의 조사는 이미 확인되거나 예측되는 사실에 대한 검증 정도였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근거로 들 수 있는 자료로 1909년 이전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진 각종 발굴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일본 국내에서는 고분, 패총, 경총 등에 대한 조사가 폭넓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석실 안에 응회암제 석관이 안치된 고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전방후원분이나 횡혈묘와 같은 여러 고분들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873년에 발견된 구마모토현의 에다후나야마 고분(江田船山古墳), 1878년 군마현 후타고야마 고분(二子山古墳), 1892년 야마구찌현 차우수야마 고분(茶臼山古墳) 등과 같은 고분들이 발견되고 그 내용이 『考古學會雜誌』, 『東京人類學會雜誌』, 『人類學雜誌』 등과 같은 여러 학회지에 게재¹⁵⁾되었으므로 당시에 관련 연구자들은 고분구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외에도 일본 오오사카 조폐창에 1872~1888년까지 근무했던 영국인 윌리엄 골랜드(William Gowland : 1842~1922)가 고분조사에 도입한 사진 촬영술과 도면 작성법 등을 통해 일본

14) 이에 대해서는 아래 논문이 참조된다. 李熙濬, 1990, 『解放前의 新羅·伽耶古墳 發掘方式에 대한 研究 -日帝下 調査報告書의 再檢討(2)-』, 『韓國考古學報』 24, 韓國考古學會.

15) 齊藤忠, 1980, 『年表てみる日本の發掘·發見史』 ① 奈良時代~大正篇, NHK ブックス 370, 日本放送出版協會.

고분 발굴조사방법이 고고학계에 정착하면서, 당시 초보적인 수준의 일본 고고학의 조사방법론이 유럽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진 점¹⁶⁾을 감안한다면, 1909년 야쓰이가 서악동 석침총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남긴 석실 도면은 이러한 영향 속에서 일본 고고학계에 정착되었던 서구식 건축제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한국과 만주 일대에서 행하여진 일본인 연구자들의 학술조사를 살펴 보면 도리이 류조(鳥居龍藏)가 1985년 8월부터 12월까지 동경인류학회에서 행한 만주 일대의 조사와 1905년 동경제국대학의 파견에 따른 고구려유적 조사 그리고 1906년에 행한 ‘母丘檢紀功碑’ 조사 등이 있다. 그리고 한국 국내에서는 1909년 10월 야쓰이 세이이치는 세키노 타다시, 쿠리야마 순이치와 함께 평양에 소재한 낙랑 고분을 발굴 조사하고 전축분 1기에서 다수의 유물을 수습한 바 있다. 또한 동년 11월에는 하기노 요시유키(萩野由之)와 이마니시 류가 전축분인 ‘大同江古墳(乙)’을 발굴한 바 있다. 따라서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이 한국에서 인식하고 있었던 고분은 고구려 고분으로 오인했던 평양지역의 낙랑 고분들과 경주지역의 대형 고분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마니시 류의 경우에는 경주지역에 소재한 대형고분들에 대해서 일련의 글을 발표¹⁷⁾한 바 있으므로 당시 경주지역 고분들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 일본 연구자들은 한국과 만주지역에 소재한 한국 관련 문화재에 대한 본격적인 고적조사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볼 때, 야쓰이의 서악동 석침총에 대한 발굴조사는 이후 한국 내에서 일본인 연구자들이 행한 고적조사의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고고학사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주지역에서 이루어진 고분에 대한 최초의 발굴조사는 1906년 9월에 이마니시 류가 황남동 남총과 동천동 고분군 중 여러 기를 조사하고 토기 13점을 발견한 것을 시초로 들 수 있지만, 1909년 한국정부 탁지부의 의뢰에 따라 야쓰이 세이이치가 조사한 서악동 석침총은 정식발굴조사로 처음 행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 한국에서 일본인 연구자들이 행한 삼국시대 고분들에 대한 연구가 순수하게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16) Victor Harris · 後藤和雄, 2003, *William Gowland-The Father Of Japanese Archaeology-*, 朝日新聞社.

17) 今西龍, 1906, 『新羅舊都慶州附近の古墳』, 『歴史地理』第十一卷 第一號 歴史地理一百號記念百名家論集; 1908, 『慶州に於ける新羅の墳墓及び基遺物に就て』(第一回), 『東京人類學會雜誌』第二百六十九號, 東京人類學會, 395~405쪽.

왜냐하면 당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후 출토유물은 동경제국대학으로 반출되었고 발굴조사 보고서가 정식으로 발간되지도 않았다. 비록 『考古界』에 간략한 조사개보가 보고되어 있지만, 이 역시도 일본 고고학회의 간사였던 와다 치요시가 별도로 부탁을 해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한다면, 당시 조사목적은 단순히 한국 고분에 대한 관찰과 현상파악을 목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진 발굴조사에 있어서도 발굴 보고서는 선별적으로 간행이 이루어졌고 출토된 유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조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속한 기관에 따라서 유물의 귀속이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V. 마치며

주지하다시피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해서 조사한 한국의 문화 유적들은 세키노 타다시가 1902년에 한국에서 건축조사를 행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인 『韓國建築調査報告』 발간 이후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야쓰이 세이이치는 1909년부터 1917년까지 8년간 한국 고적에 대한 조사사업에 참여하면서 당대 대표적인 연구자인 세키노 타다시, 쿠리야마 슌이치, 이마니시 류, 노모리 켄(野守健), 오바 쓰네키치(小場恒吉),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 등과 함께 삼국~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행하였고, 특히 20세기 초기 한국고고학사에 있어서 첫머리를 장식하는 주요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담당하였다.

그가 한국 고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한 목적은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세키노 타다시가 행한 일련의 고적조사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세키노의 조사목적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려는 일본제국주의의 정책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활동의 하나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서악동 석침총에 대한 발굴조사는 결국 한국에 소재한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일본과의 비교를 하고, 이를 근거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야쓰이의 발굴조사는 결국 바로 경주지역에서 뒤이어서 이루어졌던 용강동·보문동·서악동 등의 여러 지역에 위치한 고분들에 대한 발굴조사의 촉매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909년 야쓰이 세이이치가 발굴 조사한 서악동 석침총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조사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조사방법을 살펴본 결과 당시에 이루어진

고분발굴조사는 고분의 구조보다는 내부에 매장된 유물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위 '보물찾기식'의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조사자였던 야쓰이가 도입한 서구식 건축제도법에 의한 도면 작성법은 당시 일본 국내에서 새롭게 사용된 조사방법이었다. 또한 이후 이루어진 여러 발굴조사에서도 이러한 도면 기법이 일상적으로 사용된 점은 적어도 도면 기록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방법이 도입되었다는 점을 알려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지난 일제강점기에 발굴 조사된 서악동 석침총의 발굴조사기록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이 시기에 조사된 여러 유적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재검증작업을 통한 의미부여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한국 고고학사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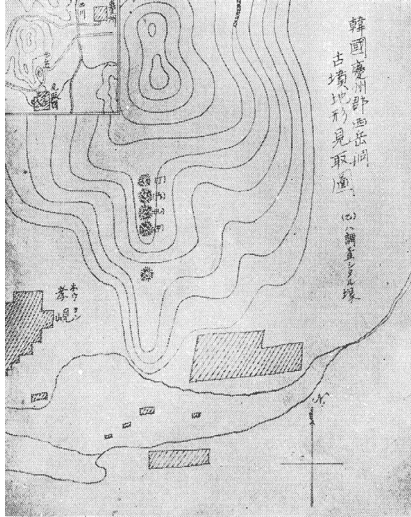


그림 1. 서악동 석침총 위치도 1
(『考古界』第八編 第二十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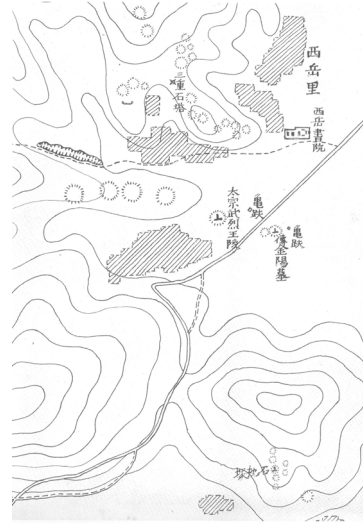


그림 2. 서악동 석침총 위치도 2
(『朝鮮古蹟圖譜』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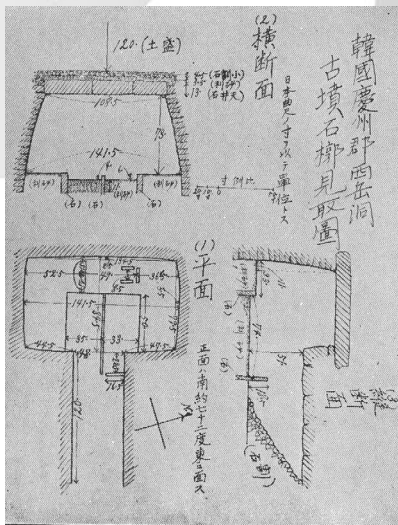


그림 3. 서악동 석침총 실측도
(『考古界』第八編 第二十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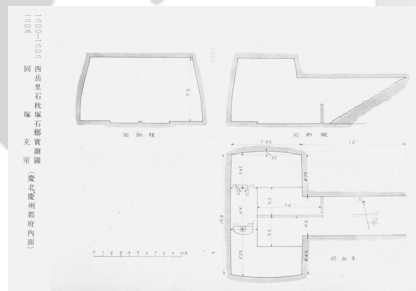


그림 4. 서악동 석침총 실측도
(『朝鮮古蹟圖譜』三)



사진 1. 경주 서악동 장산 고분군 전경 (2006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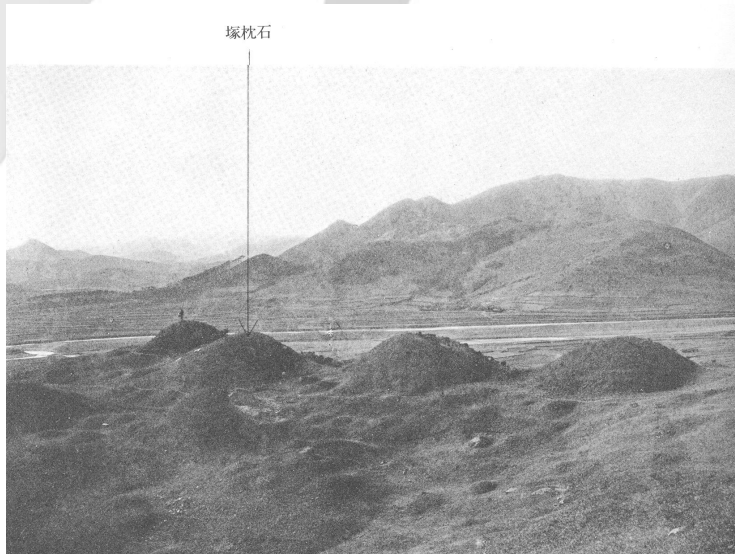


사진 2. 서악동 석침총 전경 (1909년 촬영, 『朝鮮古蹟圖譜』 三에서 옮김)



사진 3. 서악동 석침총 전경 (2006년 촬영)



사진 4. 서악동 석침총 분구 정상부의 함몰부 (2006년 촬영)



사진 5. 서악동 석침총 연도부 발굴상태 (1909년 촬영)



사진 6. 서악동 석침총 추정 연도부의 함몰상태 (2006년 촬영)



사진 7. 서악동 석침총 현실 내 시상
(1909년 촬영, 『朝鮮古蹟圖譜』三에서 옮김)



사진 8. 서악동 석침총 출토 석침(『朝鮮古蹟圖譜』三에서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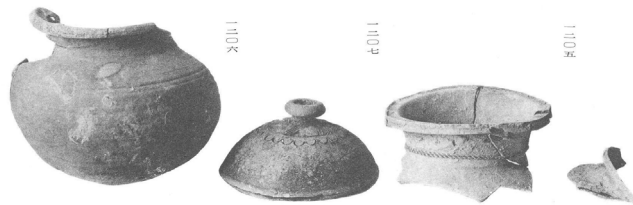


사진 9. 서악동 석침총 출토유물(『朝鮮古蹟圖譜』三에서 옮김)

참고문헌

<국문>

- 조선총독부, 1916, 「西岳里石枕塚」, 『朝鮮古蹟圖譜』三
- 崔秉鉉, 1987,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 李熙濬, 1990, 「解放前의 新羅·伽耶古墳 發掘方式에 대한 研究 -日帝下 調査報告書의 再檢討(1)-」, 『韓國考古學報』, 24輯, 韓國考古學會.
- 李熙濬, 1990, 「解放前의 新羅·伽耶古墳 發掘方式에 대한 研究 -日帝下 調査報告書의 再檢討(2)-」, 『韓國考古學報』, 24輯, 韓國考古學會.
- 홍보식, 2003, 『新羅 後期 古墳文化 研究』, 춘추각.

<외국문>

- 今西龍, 1906, 「新羅舊都慶州附近의 古墳」, 『歷史地理』第十一卷 第一號 歷史地理一百號記念百名家論集
- 今西龍, 1908, 「慶州に於ける 新羅の墳墓及び基遺物に就て」(第一回), 『東京人類學會雜誌』第二百六十九號, 東京人類學會
- 谷井濟一, 1910, 「韓國慶州西岳의 一古墳に就いて」, 『考古界』第8編 第二十號, 考古學會.
- 谷井濟一, 1910, 「慶州의 陵墓」, 『朝鮮講演』第一輯, 朝鮮日報社.
- 谷井濟一, 1910, 「慶州의 陵墓」, 『朝鮮藝術之研究』, 度支部建築所.
- 齊藤忠, 1980, 『年表てみる日本の發掘·發見史』① 奈良時代~大正篇, 日本放送出版協會.
- 內田好昭, 2001, 「日本統治下の朝鮮半島における考古學的發掘調査(上)」, 『考古學史研究』第9號.
- 早乙女雅博, 2001, 「新羅の考古學調査『100年』の研究」, 『朝鮮史研究會論文集』第三十九集, 朝鮮史研究會.
- Victor Harris·後藤和雄, 2003, *William Gowland -The Father Of Japanese Archaeology-*, 朝日新聞社.

Abstract

Location of Excavation Research in Seokchimchong at Seoak-dong, Gyeongju city, Korea

Cha, Soon Chul

'Seokchimchong' located at Seoak-dong, Gyeongju, is a stone chamber with tunnel entrance, first excavated and surveyed by Yazui Seiyichi(谷井濟一) who took an official trip to the Gyeongju area by the request of Department of Land Surveying, Korea Government, at the end of 1909. This tumulus is one of the ancient tombs that ornament the beginning part of the history of stone chamber researches, thus being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data for the study of tumuli in the Silla period.

The result of the study of Seokchimchong at Seoak-dong in the Gyeongju area at this time, conducted by the writer of this study shows that this Seokchimchong at Seoak-dong, Gyeongju, has been kept in good condition without any serious changes since it was first excavated in 1909. Furthermore, the concaved traces in the eastern part of the grave mound where its summit and entrance were located implicitly indicate how Yazui Seiyichi excavated the site. It follows from this method of excavation utilized by Yazui Seiyichi that he applied in his excavation such an excavation survey method as usually used within the country of Japan, in the state that they had no knowledge of what structure tumuli had.

As regards Seokchimchong at Seoak-dong in the Gyeongju area, even its precise location has not been thus far identified since it was first excavated in 1909. While we were restoring the contents of the investigation prosecuted by Yazui Seiyichi, we could catch that surveys of tumuli in the Silla period began at a comparatively early age. One

hundred years have already past since Imanisi Ryu(今西龍) surveyed the Silla tumuli located in Hwangnam-dong in 1906. The result of having investigated the Seokchimchong located at Seoak-dong awakens us to the fact that retesting and clarifying the implications of many historical sites excavated in the period of Japanese rule seem of much significance in history.

Key Words : Seokchimchong at Seoak-dong, Yazui Seiyichi(谷井濟一),
Stone chamber with tunnel entrance(橫穴式石室墳).

K C I